

부 록

서평 : 『현암 이을호 전서』 27책

윤사순 | 고려대 명예교수

I.

이을호의 저술을 종합한 『현암 이을호 전서』 27책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2000년 11월에 나온 『이을호전서』를 보완하고, 과거의 한자漢字로 된 인용문을 국역하여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다시 펴낸 것이다.

이을호李乙浩는 1910(경술)년 한일늑약이 체결 되던 해에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출생하였다. 경성약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서 약국을 개업했던 그는 강연회와 체육활동 및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자강운동을 펴다가, 28세 때 일제에 체포·구금 되었다. 그 형무소 생활에서 그는 유교儒敎 경전을 읽다가, 당시(1937년) 신조선사新朝鮮社에서 간행한 『여유당전서』를 접하였다. 이것이 그가 다산 정약용의 학문과 한국사상의 연구에 몰두하게 된 계기였다.

이을호의 유학 연구의 단초는 사상四象의학에 대한 지식의 습득으로 올라간다. 그는 고등보통학교 시절에 병고에 시달리다가, 동무東武 이제마李濟馬(1837~1900)의 문인이던 한의사 해초海初 최승달崔承達의 시혜로 건강을 회복한 적이 있다. 최승달에게서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까지 전수 받은 그는 한 동안 이제마의 재전再傳문인으로 의학에 종사했다. 그 후 그는 『동의수세보원』을 번역하고 사상의학의 현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 『동의수세보원』은 인간을 이해하는데 있어 성명론性命論을 전제로 하는 ‘사상四象의 체질 분류’를 기본적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명性命’이란 주자학의 ‘성리性理’와는 다른 독특한 개념이다. 그런 까닭에 그는 사상의학의 성명추구에서 조선의 독창적 사유의 일면을 발견했을 것이고, 그의 이런 경험이 중국 주자학의 이론과 다른 다산 정약용의 실학에 쉽사리 소통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

정약용의 방대한 저서들(여유당전서)을 익히던 1952년에 그는 강항姜沆(1657~1618)의 『수은간양록睡隱看羊錄』을 번역 출간했다. 이는 실학과 다

른 성리학의 세계가 따로 있음은 물론이고 조선 성리학이 일본에 영향을 준 사실을 알게 된 동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의 학문의 본령처럼 된 정약용의 실학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그 연구 성과는 정약용의 저서 번역의 출간으로 빛을 보기 시작했다. 정약용의 『맹자요의孟子要義』를 우리말로 옮긴 『한글맹자』가 1958년에 간행되었고, 이듬해(1959년)에는 또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를 번역한 『논어』를 펴냈다. 뒷날 그의 『한글논어』가 이를 더욱 보완한 것이다.

1959년에는 마침내 정약용의 경학에 대한 첫 연구 논문 「유불상교儒佛相交의 면面에서 본 정다산丁茶山」이 『백성욱박사 송수기념 불교학 논문집』에 수록되어 나왔다. 이 논문 발표의 인연으로 그는 연세대학교에서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1966년(57세) 『다산경학사상연구』를 완성했다. 이것은 그의 박사학위 취득 논문(서울대학교 대학원)으로도 이용된 것으로 이을호의 일생을 통한 정약용 연구의 신호탄과 같은 상징물이다. 이 뒤로 타계 할 때까지 그는 오로지 다산 정약용에 대한 연구를 놓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다른 분야의 한국사상 연구 업적을 쌓아 올리는 작업에서 멈출 줄을 몰랐다.

II.

이번에 간행된 『현암 이을호전서』 27책에 수록된 것은 다음과 같다.

1. 『다산경학사상연구』, 2. 『다산역학연구』 (1), 3. 『다산 역학연구』 (2), 4. 『다산의 생애와 사상』, 5. 『다산학 입문』, 6. 『다산학 각론』, 7. 『다산학 강의』, 8. 『다산학 제요』, 9. 『목민심서』, 10. 한국실학사상연구, 11. 『한 사상 총론』, 12. 『한국철학사 총설』, 13. 『개신유학각론』, 14. 『한글 증용·대학』, 15. 『한글 논어』, 16. 『한글 맹자』, 17. 『논어고금주 연구』,

18. 『사상의학 원론』, 19. 『의학론』, 20. 『생명론』, 21. 『한국문화의 인식』, 22. 『한국전통문화와 호남』, 23. 『국역 간양록』, 24. 『다산학 소론과 비평』, 25. 『현암 수상록』, 26. 『인간 이을호』, 27. 『현암이을호 연구』이다.

이을호의 학문은 위 목록으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다산 정약용의 연구로 이루어졌다. 『다산경학사상연구』, 『다산의 역학』, 『다산학 입문 入門』, 『다산학각론』, 『다산학강의』, 『다산학제요』, 『목민심서』가 그런 것이다. 이 밖의 『개신유학』, 『한국철학사』, 『한국문화의 인식』, 『한 사상 총론』 및 『사상의학 원론』은 그의 학문 연구의 폭을 짐작케 하는 증거이다. 그의 학문은 다산의 경학에서 출발하여 한국의 사상과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섭렵을 시도 한 것이다.

그는 그의 대표적 업적이라 할 수 있는 『다산경학사상연구』에서 정약용의 학문을 ‘수사학적洙泗學的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실학’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파악은 정약용의 학문뿐만 아니라, 조선조의 실학 전반과 유학들을 이해하는 그의 관점과 학문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수사학洙泗學이란 본래의 공자학을 뜻한다. 공자학을 기준으로 삼는 한, 그 뒤의 한당학漢唐學이나 송명학宋明學 청대학清代學등은 모두 유학 본래의 옛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하는 근거가 된다.

이을호의 이런 방법론적 관점 또한 캐어 보면 정약용의 태도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 좋은 실례가 바로 정약용의 오학五學 배척의 태도이다. 오학의 배척이란 곧 성리학性理學, 훈고학訓詁學, 문장학文章學, 과거학科擧學, 술수학術數學의 다섯 학문이 수사학의 정신을 가로 막는 장애요인으로 보아 물리치는 것이다.

오학이야말로 공자의 가르침을 가로막아서 요순주공堯舜周孔의 문門에 함께 들어 갈 수 없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이 정약용의 판단이었다. 이을호 또한 이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고 계승하여 조선조의 유학을 이

해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정약용이 오학론을 앞세워 주자학을 배격하였던 듯이 이을호 또한 주자학을 철저하게 한국사상의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으려 했다. 그의 『한국개신유학사시론韓國改新儒學史試論』이 사실상 이와 같은 관점에서 조선시대의 유학사를 재구성한 것이다.

Ⅲ.

개신유학이라는 말은 본래 천관우千寬宇가 조선 후기 실학을 정리하면서 송학宋學, 또는 리학理學을 신유학新儒學이라 규정한 것에 대응하여 낸 용어이다. 신유학新儒學이라는 신新까지 다시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사용한 용어가 천관우의 개신유학改新儒學이다. 이을호 또한 공자의 학문 정신으로 성리학을 극복하려 한 유학이 정약용의 실학 등이라 판단했으므로, 조선의 후기 실학에 이 개신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더욱이 이을호는 그 개신유학 정신이 주자성리학을 바로 잡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한국적 사유에서 형성된 한국의 유학을 이룩하는 출발점이라 믿었다. 이는 신유학을 개신하는 정신이 본연의 한국유학으로 회복 또는 회귀하는 길이라는 신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식에서, 그는 실제로 한국인의 독특한 사유로 형성된 한국 고유사상에 주목하게까지에 이르렀다.

그의 『개신유학사시론』에 따르면, 조선조 개신유학의 주류는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울곡栗谷 이이李珥—백호白湖 윤휴尹鑰—다산茶山 丁若鏞—동무東武 이제마李濟馬의 사상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이들 사고의 근원에는 한국적 사유가 그 원천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단군의 설화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의 정신이라 간주했다. 한국의 고유 사상인 ‘한’의 정신이 개신유학의 주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단군의 설화에 근원하고 있는 ‘한’의 정신은 무엇인가? 이을호에 따르

면, 한국 민족의 정신적 근원에는 중국과 다른 한국적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아닌 하나를 지향하는 ‘한’의 정신이라 한다. 단군왕검인 군왕과 그의 자손이자 신민이 실은 하나라는 것이 그 ‘한’의 구체적 실례이다. 이것이 중국사상과 한국사상을 변별하게 하는 한국의 근원적 사유라고 역설한 것이다.

그가 드는 ‘한’ 정신의 구현 사례는 매우 많다. 정약용이 『육경사서六經四書』의 수기修己 측면과 일표이서一表二書의 치인治人이 방법이라는 두 가지를 하나로 파악하는 사실을 비롯하여, 기대승奇大升이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을 한가지로 생각하는 사유와, 이이李珥가 리理와 기氣를 둘이면서 하나인 묘합妙合으로 이해한 사실, 윤휴尹鑰가 인심人心 도심道心을 일심一心으로 이해한 것, 그리고 최치원이 난랑비鸞郎碑 서문에서 유·불·도를 포함하는 하나로서의 풍류도를 말하는 것 등이 모두 그러한 사례이다. 이러한 견해를 펴려한 그의 저술이 『한사상총론』과 『한국유학사총설』이다.

이을호는 『한사상총론』에서 단군사상으로부터 근대 민족 종교에 이르기까지 우리민족의 정신에 깃들인 ‘한’ 사상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중국인들의 사유와 다른 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의 실학적 사유를 척출하여 ‘한국유학사’로서 서술한 내용이 『한국유학사총설』이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건국 신화에서 삼황오제三皇五帝를 말하면서 ‘인신우수人身牛首’라고 하던가, 사신인수蛇身人首 라는 것은, 인人·수獸의 미분화未分化를 말하는 것에 불과하며, 목덕木德이나 화덕火德으로 왕이 되었다는 것은 오행설에 근본하고 있는 사유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의 건국 설화에서 환웅이 삼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신시神市에서 홍익인간弘益人間的 정신을 베풀고 단군을 탄생 시킨 것은, 신神·인人·天일치의 정신으로써 어디까지나 ‘한’을 지향하는 것이라

한다. 따라서 이는 한국의 신화시대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온 우리 민족정신의 근간에 잠재한 특수 사유라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IV.

2010년은 이을호의 탄생 1백 주년이 되는 해였다. 한국공자학회에서는 그의 탄생 1백 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학문과 사상’을 다채롭게 조명하여 『현암 이을호 연구』를 펴냈다. 그것은 이번에 낸 『현암 이을호 전서』 27책의 마지막 권에 들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부. 「이을호의 생애와 학문적 위상」, 2부. 「시대적 인식과 의학연구」, 3부. 「자주성의 자각과 경전연구」, 4부. 「다산학과 실학」, 5부. 「다산학을 넘어 현대화로」라는 주제로서 모두 18편의 논문을 싣고 있다.

먼저 「생애와 학문적 위상」에 대하여 그 제자 오종일은 “이을호가 일제에 저항하였던 민족운동은 그를 정약용의 다산학茶山學 세계로 인도하였고, 정약용과의 만남은 한국문화의 독자적 특징을 밝히는데 이바지하게 하였다”(오종일:현암 이을호의 삶과 학문)라고 했다.

윤사순은 학문적 특징에 대하여 “다산경학연구로 학문을 시작한 이을호는 개신유학의 연구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고, 1970년대 이후로는 ‘한’사상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여 자신의 연구를 마무리 지었다. 그 결정체가 바로 『다산경학사상연구』(1966), 『한국개신유학사시론』(1980), 『한사상의 묘맥』(1986)이다. 이 세 저서는 실로 3부작이라 할만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을호의 탈주자학적 탈중국적 시각의 연구 작업은 정약용의 실학 연구로 출발하여 ‘한’사상의 연구에서 절정에 달했다. 그의 한 사상은 실학사상과 한국의 일반사상 사이에서 그 연결고리를 찾다가 발견한 한국사상의 대동맥大動脈이며 순혈맥純血脈이라 할 것이다”(윤사순:현암의 다산사상 이해에 적용된 시각의 문제)라고 진단하였다.

또 다른 발표자인 최영성은 이을호 학문의 가치와 그 의의를 아래와 같이 논했다” 이을호의 자주적 사상사 연구는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일제시기 신채호·박은식·문일평·정인보 등의 민족사학적 전통과 보조를 같이한다. 저들의 민족사학적 관점은 일제에 결코 동화될 수 없는, 우리 고유의 문화와 사상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지키는데서 민족의 내일을 기대할 수 있고, 독립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였다. 이을호에게 ‘자주’의 의미는 비록 처한 시대가 달라서 탈주자 탈중국에 국한되었지만 조선역사의 저류에 흐르는 조선혼 조선열, 민족정신을 강조한데서 민족사학자들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던 듯하다. 이 가운데 특히 실학을 조선심朝鮮心の 재현으로 보았던 문일평과 견해를 같이한 것이 주목된다”(최영성·한국철학연구사에서 본 현암의 위상)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로 이을호 학문의 ‘핵심과 성격’이 거의 대부분 드러났다고 여겨진다.

V.

이을호를 언급하면서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점은 그의 ‘한글 사랑’이다. 그의 한글 사랑은 곧 그의 민족의식의 반영과 직결되는 점에서 주목될 만하다. 그는 고집스럽게 ‘한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우리말’을 아끼고 가꾼 학자로 기억된다. 그가 번역한 유가 경전들에는 모두 ‘한글’이라는 표현이 강조되듯 따랐다. 『한글 중용 대학』, 『한글 논어』, 『한글 맹자』가 그것이다. 그의 이와 같은 점은 우리의 말과 글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문화를 가꾸려고 하던 의욕의 표출이 아닐 수 없다.

이을호는 한국철학자 1세대의 끝자락에 위치한 학자이다. 광복 후 대학에서 후학들을 지도했던 이른바 동양철학 1세대에 해당하는 학자들은 한 두 학자 외에는 거의가 일본 유학 출신이거나 경성제대에서 일인

의 교육을 받은 인물들이다. 그들은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 철학을 가르쳤지만, 그 내용은 식민지사관을 앞장 서 조작한 일본인들의 교육 영향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식민지사관을 조작한 일인日人들이란 조선총독부 조선사朝鮮史 편수회編修會의 수사관보修史官補였던 이마니시 류今[西龍]와 경성제국대학창립위원을 지내고 조선사상사를 가르쳤던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라 할 수 있다. 한국사상의 경우는 후자가 도맡아 왜곡하고 곡해하다시피했다. 따라서 당시 한국사상을 이해하는 데서는 다카하시 토오루의 영향이 가장 컸다. 그가 1929년에 발표한 「조선유학사에서의 주리주기파의 발달」이 한국유학을 왜곡한 대표적 논문이고, 그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논문의 요지는 조선조 주자학을 분열과 대립이라는 결론으로 이끈 것이고, 그 저술의 의도는 조선인들의 단합성 결여를 증명하려는 불순한 목적에 두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그것은 일인들의 조선 식민지화에 대한 정당화를 노린 내용과 성격으로 된 주장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조선인들은 피교육자의 위치에서 그 음험하고 악의에 찬 주장을 마치 금과옥조처럼 신봉하는 우매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을호는 그러나 그와 같은 학문 풍토에 물들지 않고, 독자적인 환경에서 정약용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으면서 한국사상을 탐구했다. 조선조 실학에서 조선 민족의 독자적 의식을 찾고 그 의식으로 한국사상을 재구성하려 진력했다. 일제 강점기의 그는 일인 학자들과는 동떨어진 국외자의 처지에서 ‘독학獨學’의 형태로 정약용의 실학과 조선조의 유학사 및 한국문화 전반의 특징을 추구했다. 그의 학문적 업적을 결코 소홀하게 취급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

평자는 일찍이 그의 한국유학 연구 업적에 대하여 “이을호의 연구는 정약용의 철학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한 효시로서의 의의를 지니

기도 하지만, 후기실학에는 성리학의 경학과 다른 경학사상이 있음을 드러내어 ‘후기실학의 철학’이 성리학의 그것과 이질임을 분명히 한 가치가 크다”(『줄져 한국유학사·지식산업사·下P479)라고 했다. 그의 업적에 대한 평자의 이 평은 지금 이을호를 다시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인색함을 면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자문하게 된다.

그의 이론들의 세세한 타당성 가름을 뒷날로 미룬다면, 중국과 다른 한국의 독자적 사유로 한국 유학을 재구성하려 한 그의 의지, 다시 말해 종전의 조선유학을 이해하는 관점부터 수정을 가하려고 한 그의 의지는 높이 사야 할 학문태도라 여겨진다.

모쪼록 이번에 간행된 『현암 이을호 전서』 27책이 현암 이을호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학계에서 다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